

消費者 理論과 國富(朴健榮 著, 原題: “Consumer Theory and National Wealth”) — 書評

金 容 寬

이 책은 消費者 行爲의 여러 측면이 國家 經濟 變數의 동향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모형화하고 분석하고 있다. 최근의 경제학의 조류가 巨視經濟學 분야에 微視的 접근법을 보다 다양하고 심도있게 도입하고 있는 추세에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시의적절한 시도라고 할 수 있겠다. 네 가지 주제에 관한 소비자 행동 분석 모델이 제시되고 있는데 첫째로, 소비자의 효용함수의 형태가 景氣變動의 양상에 어떤 관련을 맺는지 분석하였으며, 둘째로, 世代間의 緊密性의 정도가 소비자의 저축 행태 및 최적 사회보장제도의 형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셋째로, 소비자의 근시안적 의사결정 행태에 따른 動態的 非一貫性이 內生的으로 수정되는 경로를 제시하고 근시안적 의사결정을 외부적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제도적 장치의 인위적 설치가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극단적인 행위로 분류될 수 있는 自殺의 동기 및 실행을 最適化 模型하에서 분석하고 자살률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사회, 경제적 정책이 유효성을 갖출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였다.

본문의 첫 장인 제II장 Consumer Preferences and Business Cycles은 非線形 效用函數를 경기변동을 설명하기 위한 實物景氣變動(Real Business Cycles) 模型에 도입하고 그 결과, 로그선형 효용함수를 이용한 결과에 비하여 모형의 현실 경제에 대한 설명력이 향상됨을 보였다. 실물경기변동 모형에서 일반적으로 채택하는 방법론은 소비자의 동태적 최적화 모형으로부터 도출된 해를 사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거시변수의 시계열을 생성하여 현실 경제로부터의 시계열과 비교함으로써 모형의 설명력을 판단하는 것이다. 그 설명력을 판단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준 중의 하나는 모형에서 생성된 巨視變數의 變動性의 정도가 현실 경제와 부합하는가의 여부이다. 기존의 문헌에서 사용된 모형이 초래한, 최근에 등장한 중요한 문제점의 하나는 生産性이 변동함에 따라 勞動時間의 변동하는 정도가 지나치게 크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보다 이전의 문헌에서 등장한 문제점인, 지나치게 적은 노동시간의 변동성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동시간의 비연속성을 모형에 도입한 결과이다. 이제 노동시간의 지나친 변동성이라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 장에서는 效用函數를 실물경기변동 모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로그선형함수 대신에 非線形函數를 도입하였다.

도입된 非線形函數 형태하에서 효용함수의 獨立變數인 餘暇와 消費는 비선형 형태로 결합하게 되고 그 결과 한 변수의 변화는 다른 변수의 限界效用의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특히 여가와 소비가 효용함수 내에서 서로 補完財적인 관계를 가지게 되면 所得의 증가에 따른 消費의 증가는 餘暇의 限界效用을 증가시키게 되고 그 결과 餘暇의 크기는 증가하는 반면 勞動時間은 감소하게 된다. 이와 같은 노동시간에 대한 생산성 증가에 따른 소득효과는 여가와 소비의 보완재적인 관계에서 도출된 것으로 기존의 일반적인 소득효과에 추가되어 소득효과 전체의 크기가 증가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생산성의 증가는 노동시간에 대하여 所得效果와 代替效果를 초래하며 소득효과는 逆變動的(counter-cyclical) 효과인데 반하여 대체효과는 順變動的(procyclical) 효과로 파악될 수 있다. 생산성이 증가하여 임금이 증가하면 소득효과로 인하여 노동시간은 줄어들게 되므로 所得效果는 逆變動的이다. 반면에 생산성의 증가와 이에 따른 임금률의 증가로 인하여 여가의 기회비용이 상승하여 소비가 여가를 대체하고 노동시간이 증가하므로 代替效果는 順變動的인 것이다. 이와 같이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생산성 변화가 노동시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순변동적이기 위해서는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를 압도하여야 한다. 반면에 모형에서 생성된 노동시간의 순변동적 변동성이 지나치게 크다면 소득효과를 증가시킴으로써 이를 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는 효용함수에 비선형성을 도입하여 所得效果를 증가시킴으로써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였다.

제III장 Interaction among Generations and Its Implication for National Wealth는 世代間的 利他的 動機를 소비자의 消費와 貯蓄行爲를 설명하는 최적화 모형에 도입하기 위하여 辭典的(lexicographic) 效用函數를 정의하고 이를 통하여 평균수명이란든가 국가 사회복지정책 등 외부적 요인의 변화가 소비자의 소비와 저축행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기존의 경제학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는 불확실한 생애 기간에 직면하여 자식 세대에 대한 利他的 動機를 생명보험의 가입이란든가 자식에 대한 유산 상속 등을 통하여 구현하고 자신의 消費滿足 動機는 보유 자산을 逆모기지(reverse mortgage)를 통하여 구현하는데, 최종적인 소비자의 선택은 자식 세대에 대한 이타적 동기가 자신의 소비만족 동기에 비하여 얼마나 큰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소비자의 자식세대에 대한 이타적 동기가 巨視經濟學的 관점에서 중요한 이유는 政府 財政政策의 변화로 인한 國家 負債의 변화가 최종적인 실물 변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리카도의 等價性法則(Ricardian Equivalence)이 소비자의 이타적 동기가 유효한지의(operative) 여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만일 소비자의 이타적 동기가 유효하다면 정부 부채의 크기가 변하여 미래의 조세 변화가 예상될 경우 소비자는 이에 상응하는 저축

의 변화를 이루기 때문에 정부 부채 변화액-예를 들어, 조세의 감소액-은 동일한 액수의 저축액 증가를 초래하여 실물 경제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게 된다.

저자는 이와 같은 자식 세대에 대한 이타적 동기가 유효하다면 왜 생명보험이나 유산의 크기에 비하여 생존시의 직접적인 증여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미약한 것인가에 대하여 의문을 던지고 있다. 이러한 의문에 대하여 기존의 경제학 연구에서 제시한 답을 들자면 Bernheim *et al.*(1985)이나 Cox(1987)는 자식 세대의 효도(filial attention)를 유도하기 위한 전략적 동기에서 遺産의 實行時點을 최대한 뒤로 미루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반면에 저자는 소비자의 효용함수를 스스로의 소비와 자식 세대의 소비에 대하여 辭典的인(lexicographic) 형태로 정의하여 분석을 전개하였다. 辭典的 效用을 순수한 형태와 부분적인 형태로 구분하여 순수한 사전적 효용하에서는 生存時 贈與(inter vivos transfer)가 전무하지만 부분적인 사전적 효용하에서는 생존시 증여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사전적 효용이 도입된 모형하에서 저자는 生命保險과 年金保險(annuity insurance)의 상반된 역할을 재조명하였다. 생명보험은 현재의 소비를 감소시킴으로써 본인의 유고시 상속재산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반하여 연금보험은 현재의 소비를 증가시킴으로써 본인의 유고시 상속재산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소비자는 자식 세대에 대한 이타적 동기의 크기에 따라 생명보험 혹은 연금보험 하나만을 선택하게 된다. 純粹한 辭典的 效用函數 형태하에서 이타적 동기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생명보험의 크기가 늘어나거나 연금보험의 크기가 감소하게 됨을 보였다. 平均壽命이 늘어남에 따라, 즉 사망확률이 줄어들에 따라 생명보험의 크기가 감소하거나 연금보험의 크기가 증가함을 보였다. 社會保障에 따른 強制貯蓄이 부과될 경우, 강제저축액의 크기가 私的貯蓄의 크기와 일치할 경우 강제저축액이 사적저축의 감소와 상쇄됨으로써 추가적인 연금보험이나 생명보험의 변화는 따르지 않으나 강제저축액의 크기가 자발적인 사적저축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은 연금화를 통한 추가적인 수입을 통하여 상쇄시킴을 보였다. 즉 보험시장의 크기가 사회보장의 도입으로 인하여 증대되는 결과를 보였다.

部分的인 辭典的 效用函數(partially lexicographic preferences)는 소비자의 생전에 자식 세대에게 필수적인 지출을 위하여 필요한 最低 贈與額을 도입함으로써 설정하였다. 이러한 최저 증여액이 도입될 경우 일반적인 생애 예산제약조건에 더하여 最低贈與 制約條件이 추가되며 이러한 제약조건이 拘束的(binding)인가의 여부에 따라 유고시 유산액과 생존시 증여액의 크기가 같아지는가가 결정됨을 보였다. 즉 최저증여 제약조건이 구속적이라면 생존할 경우 자식 세대에게 증여하는 금액의 크기는 생존하지 못할 경우 남기는 유산의 크기보다 항상 적거나 같음을 보였다. 즉 자산의 연금화가 발생하며 이와 같은 결과

는 효용함수의 사전적 성격이 부분적으로 성립하는 경우에도 그 효력이 발생함을 보인 것이다.

제IV장 Consumer's Planning Horizon and Economic System은 소비자의 근시안적인 행태의 정도가 내생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도입한 最適 意思決定模型하에서 주변 경제여건이 변함에 따른 소비자의 반응의 성격을 규명하였다. 기존의 경제학 연구에 따르면 근시안적인 행태는 소비자의 최적 의사결정이 동태적으로 일관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즉, 당기의 최적 의사결정에 따른 미래에 대한 계획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최적성을 상실하는 것이다. 기존의 경제학 문헌들은 이와 같은 動態的 非一貫性을 수정하기 위한 사회, 경제적 도구로서 개인의 경제행위의 자유를 제약하는 여러 제도적 장치-예를 들어, 여러가지 종류의 강제저축-를 지적하여 왔다. 이 장에서 저자는 개인의 근시안적인 성향을 소비자 스스로 조절가능한 內生變數로 규정하고 이에 따른 결과를 제시하였다. 첫째로 근시안적인 성향이 내생화되었을 경우 저축성향이 증가하고 이자율이 증가할 때의 저축 증가액의 크기가 확대됨을 보였다. 둘째로, 동태적 비밀관성의 정도가 근시안적 성향의 내생화로 인하여 축소됨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저자는 소비자의 근시안적 행태를 수정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가 경제적 효율성의 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초과하여 시행될 수 있는 위험성을 지적하였다.

제V장 Consumer's Extreme Behavior: Suicide는 소비자의 극단적인 행태로서의 自殺을 最適化模型의 意思決定 變數의 하나로 다룰 수 있는 틀을 마련하였다. 실제적인 행위로서의 자살은 二變量(binary) 변수이지만 이를 連續變量(continuous) 변수로 표시하기 위하여 生命維持行爲(life-maintaining activity)를 정의하였다. 생명유지행위는 생존확률을 결정하는 제반 행위를 포함하며 생명유지행위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쾌락을 위한 소비에 사용될 수 있는 재화를 소모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와같은 정의하에서는 생명유지행위란 건강증진을 위하여 비용을 지불하는 여러 적극적인 활동-예를 들어, 운동, 건강검진-등이 포함될 수 있지만 여러 종류의 비소비 행위 또한 잠재적으로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회나 기타 종교단체에 기부금을 납부하는 행위를 자신의 만족을 위한 소비라기보다는 그 반대로 소비를 줄이는 대신 사후를 위한 투자를 한다거나, 사후에 대한 믿음이 적은 경우에는 단순히 정신 건강을 위한 지출이라거나, 아니면 아무런 목적없이 단지 자신의 소비를 줄이는 것 자체 이외에는 아무런 목적이 없는-이타심을 포함해서-행위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정의하에서는 같은 재화를 소비하더라도 생존확률에 대하여 다른 효과를 초래한다면 그 분류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음식에 대한 지출의 경우, 건강 유지에 필요한 절대요구량 미만의 음식에 대한 지출은 生命維持

行爲라고 볼 수 있으나 그 이상, 특히 체중증가를 초래하거나 기타 유해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음식에 대한 지출은 單純 消費로 분류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생명유지행위의 정의하에서 生存確率을 어느 한계점 이하로 떨어뜨리는 행위들 전체를 自殺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자살로 정의되는 최저 생존확률의 근방에서는 생존확률이 비연속적으로 급속히 하락하는 형태를 정의하였다. 이와 같이 정의된 생명유지행위와 자살행위를 사용하여 消費者의 最適意思決定이 자살에 이를 수 있는 조건을 구하고 그 조건하에서 자살을 저하를 위한 공적 정책이 유효하기 위한 조건을 제시하였다. 만일 소비자의 최적의사결정이 생존확률이 불연속적으로 하락하는 점에서 구석해의 형태로 구해진다면 가격변수의 한계적 변화는 자살로 귀결된 의사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음을 보였다.

消費者 行動과 관련된 여러 측면을 巨視經濟學에 도입하여 분석을 전개하였다는 점에서 이 책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제시된 소비자 행동이 과연 충분한 微視的 토대를 갖추고 있는가에 관한 성찰을 보다 깊이 해야 할 필요성이 엿보이는 구석이 없지 않음을 지적할 수 있겠다. 예를 들어, 消費者의 效用函數가 비선형인가 아니면 로그선형인가 하는 문제가 과연 그 자체로 검증 가능한 문제인지, 그렇다면 기존의 미시 분야에서 그에 대한 결론에 이미 도달했는지 하는 문제를 좀 더 깊이있게 다루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세대간의 연결 정도를 나타내기 위하여 辭典的 效用函數를 도입하는 문제 또한 그 자체로는 재미있는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겠으나 그 타당성 자체에 대한 검토가 더욱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다. 소비자의 近視眼的인 行態의 정도를 內生化한 것도 의미있는 시도라고 할 수 있고 이와 같은 내생화에 따른 모형의 결과와 기존 모형과의 차이점은 부각되었지만 기존 모형과의 결과와 일치하는 점이 있는지, 또한 기존 모형의 결과를 단지 다르게 해석한 결과가 된 부분이 있는지에 관한 기술이 좀 더 이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自殺에 관한 理論的 模型은 이론 자체로는 매우 독특한 시도라고 할 수 있겠으나 현실적인 문제로서의 자살을 설명하거나 자살을 감소를 위한 실제 정책의 효과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實證分析을 추가시킬 필요성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成均館大學校 經濟學部 教授

110-745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동 3가 53번지

전화: (02) 760-0434

팩스: (02) 744-5717

E-mail: ygkim@skku.ac.kr

參考文獻

Bernheim, B. Douglas, Andrei Schleifer, and Lawrence H. Summers(1985): "The Strategic Bequest Motiv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3**, **6**, 1045-1076.

Cox, Donald(1987): "Motives for Private Income Transfer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5**, June, 508-546.